

다우코닝, 미래세대 그린에너지 활동 지원

다우코닝이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와 함께 충청북도 소재 중·고등학교 그린에너지 동아리 20개를 선정해 교내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, 태양 및 풍력 등 신·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지원한다.

한국다우코닝은 6월 말까지 충청북도 소재 중·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내 에너지 활동 계획서를 공모받아 총 20개의 동아리를 선정한 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학교별 활동을 토대로 11월 우수활동 동아리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이다.



선정된 20개 학교 그린에너지 동아리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금과 그린에너지 관련 교육캠프 및 자료 등이 제공된다.

한국다우코닝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다우코닝 충북 진천 공장 인근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우코닝 환경과학교실을 진행해 왔으며, 6년간 총 100여 개의 초등학교, 36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환경과학교실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및 의지를

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.

한편, 다우코닝은 태양광 및 풍력 등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실리콘(Silicone) 기술을 접목시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, 태양광 솔루션 응용기술센터를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에 하반기 오픈할 예정이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10/06/08>